

기관 돋보기 |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6년 설립되어 전국적으로도 역사가 오래된 장애인복지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A등급' 및 중증장애인직업지원사업 직업재활센터 평가에서 '최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충북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1990년대 청주지역에는 특수학교를 수료한 장애인이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전무했다. 이에 청주해원학교 자모회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다년간 일일 찻집, 꽃 제작·판매 등으로 기금을 모아 주춧돌을 형성하여 천주교청주교구와 보혈선교수녀회가 중심이 되어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했다.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오현숙 관장)은 25년의 역사를 지니며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이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그간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주민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활동지원서비스, 가족지원사업, 문화여가사업, 공공형일자리사업 등을 진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직업재활센터 평가 '최우수'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장애인들 지역사회주민주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총력'

행 중이다.

월평균 700명 이상이 복지관을 이용하며 이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관 인근에 있는 마을공동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한 빵 만들기, 산남오너즈(봉사단체)와 함께하는 나눔행사 등 활발한 지역사회 연대 및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16년 복지관내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했던 '빛뜨락축제'에 2017년부터는 마을지역공동체와 협업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반자로 만든 축제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의 축제를 공동 주관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공영,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체험부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확대됐다.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45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300명 이상의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연계체계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 및 2019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2000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

업 직업재활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200여명의 구직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제공해 2020년 중증장애인직업지원사업 직업재활센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현숙 관장은 "취업알선 제공에는 지역사회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기업체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의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시 지역 내 추가혜택 제도를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매뉴얼 마련, 비대면 서비스 개발 등 팬데믹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적극 힘을 쏟고 있다.

오 관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의 움직임에 발맞춰 사업계획 수립 및 유대관계 강화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25년 간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섬 없이 달려온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나온 25년보다 앞으로의 25년이 더욱 기대된다.

충북도, 2022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

국비 206억 확보, 도내 곳곳에 주민 삶의 질 제고 기대

충북도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신청한 7개 사업(18개 시설)이 모두 선정되어, 도내 곳곳에서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또는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것으로, 복합화를 통해 시설 활용도 제고, 다부처 사업 통합 추진, 운영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향상 등이 가능하다.

특히, 복합시설의 경우 기존 단일시설 지원비율에 국고보조율이 10% 추가 지원되며, 대상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등 13종의 시설이다.

이번에 선정된 충북도 복합화 7개 사업(18개 시설)은 총사업비 562억 원 규모에 국비는 206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예정인 복합화사업은 청주 복합생활문화센터, 제천 다봄커뮤니티, 보은 행복가족센터, 보은 농촌복합문화센터, 옥천 청성·청산 국민체육센터, 괴산 복합문화센터, 괴산 문화복지행정타운 등이다.

청주시는 주민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성화동 일원에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제천시와 통합적 지역복지시스템 제공을 위해 명지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건립한다.

보은군은 보은읍 행복가족센터에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며, 수한면 동정분교(폐교)를 활용해 농촌 복합체험관에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농촌체험관을 건립해 소외됐던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특히 옥천군은 청성·청산 국민체육센터 사업으로 공공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 4개면(청산면, 청성면, 마로면, 용산면)이 공동 이용 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해 남부 3군의 교류와 화합도 기대된다.

괴산군은 새롭게 조성되는 미니북향타운 내 부족한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복합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을 조성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아동센터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지역아동센터 성과·과제 토론회 개최

근로자 처우·예산 증액 등 아동 돌봄 발전 방안 열띤 토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가 지난달 28일 이숙에 의원(청주)이 좌장을 맡아 '지역아동센터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연구소장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아동돌봄 발전 방안'으로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양선 충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금의 한계, 종사자 최저임금 지급, 과중한 업무 처리 등은 질 높은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시작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점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원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마련 검토 및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에도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에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주도해 시작한 아동교육과 돌봄 뿌리로 돌봄아동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빛뜨락축제에서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연주회 모습.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7회 청주시 사회복지대회, 유공자 표창

청주복지대상·사회복지유공자 19명 표창

청주시와 청주시사회복지협회의회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12월 7일 청주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대회 부대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표창장 수여식만 혼격별로 해당 장소에서 최소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에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 복지인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청주복지대상을 비롯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사회복지 공무원 등 19명이 시장·시의장, 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청주복지대상은 1992년 사회복지사 활동을 시작으로 29년간 지역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재활복지 현장에서 인간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등 헌신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높게 평가된 장규연 청주시장



청주시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12일 '7회 청주시 사회복지대회'를 열고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장이 수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사회복지인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소통해 다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군,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대폭 개선’

체크카드 디자인 교체, 사용처 100곳→720곳으로 ‘확대’

단양군이 결식 우려 아동들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의 개선된 시스템을 5일부터 시행한다. 아동급식카드의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에게 일반음식점과 식자재마트 등을 통해 원활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지원된다.

기존의 아동급식카드의 결식아동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 돼 사용 시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마그네틱 결제 방식으로 일부 매장의 카드 단말기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군은 기존 급식카드를 ‘NH농협은행 체크카드 디자인’

으로 전면 교체해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없도록 하고 IC칩을 삽입해 모든 방문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BC카드 가맹점 자동연계를 통해 100여 개소에 불과하던 아동급식 사용처를 720개소로 대폭 확대해 사실상 지역 내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게 개선했다.

아동급식 카드의 사용처는 기

존처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 ‘NH앱캐시’, 단양군 행복드림카드 홈페이지(cb.nhdream.co.kr), 단양군청 홈페이지(www.danyang.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새로 발급되는 IC카드는 이용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용 중인 카드를 반납하고 교체 발급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급식카드 시스템 개선과 카드 교체 발급을 통해 아동들의 급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무장애 관광’ 기반 구축

‘청풍호반케이بل카’·‘청풍호유람선’ 열린 관광지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불편 해소

제천에 있는 청풍호반케이بل카와 청풍호유람선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됐

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 계획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전문

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된 후 주요 관광시설, 보행로, 이용·편의 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보수하고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앞으로 제천시는 총사업비 10억(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열린관광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확대

회의실·주차장 이어 자연휴양시설·양수장비 등 추가

진천군은 공공개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다.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물품 등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서비스는 기존 운영하던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도입해 편의성을 더했다. 특정 지역의 공공개방자원과 길 찾기, 예약 진행상황 확인 등이 가능하다.

군이 등록한 공공자원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주차장·강의실·라돈측정기 등이 있다. 올해는 자연휴양시설, 양수장비 등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공유누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회원가입 후 지역·종류별 이용 운영시간, 예약방법 등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시설 대관과 물품 대여는 제한

해 사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편의 향상을 위해 공유 가능한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충주시, 독거노인에 돌봄로봇 ‘다숨이’ 보급

‘로봇 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주)원더풀캣폼이 지난달 29일 충주시노인복지관에 돌봄로봇과 나노로봇 등 12대를 기탁하고 있다.

충주시가 로봇을 활용해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충주시노인복지관, (주)원더풀캣폼과 컨소시엄으로 한 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1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공모 선정에 따라 컨소시엄은 총 2억 원(국비 70%, 시비 20%,

기업 10%)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우울척도 검사 결과 우울감 높은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돌봄로봇 ‘다숨이’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돌봄로봇 ‘다숨이’는 응급호출 기능, 말벗 대화 기능, 복약 여부 체크, 알람, 긴급상황 모니터링, 사용자 간의 대화, 다양한 콘텐

츠 감상 등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다숨이 로봇 보급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심리적 외로움 해결과 우울증, 치매 예방,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건강증진 효과성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컨소시엄 기업 (주)원더풀캣폼은 지난달 29일 노인복지관에 체험·교육용 인공지는 로봇 12대(다숨이 로봇 10대, 나노로봇 2대)를 기탁해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체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서비스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로봇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대면 서비스와 더불어 ICT 돌봄서비스를 병행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권 지원 확대 시행

생계·의료수급자·차상위계층 4091명 혜택

충주시가 이달부터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게 매월 1대(년 12대) 지급하던 노인목욕권을 차상위계층 노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시는 목욕권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매 분기 첫 달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목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목욕권은 지역 내 46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781명이 추가 혜택 대상자로 총 4091명에게 지급

된 목욕권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 기회 제공과 청결 유지에 목적이 있다”며 “더욱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군, ‘농아인 수어통역서비스’ 무료 제공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예약시스템 운영



음성군이 무료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어 시범을 하고 있는 통역사들.

음성군은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아인(청각·언어 장

애인)들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

군에 따르면, 수어통역 서비스는 예약시스템(긴급 상황 시 예외)으로 운영되며, 서비스 요청 시 통역사가 함께 병원·마트 등을 방문해 의사소통을 돕는다.

수어통역 서비스는 음성군 수어통역센터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은 추후 신청 시 방문 신청이 아닌 문자·영상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통역사의 연락처가 제공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수어통역 서비스로 농아인들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사람이 소중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달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들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이숙애·이옥규 의원,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 차별 없이 모두 지급해야”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영유아 교육재난지원금(보육지원금)의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옥규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충북도는 도내 모든 만 3~5세 영유아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교육청은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때 유치원생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했지만 도 협의회 정서 이를 삭제했다”며 “단체장

과 교육감이 협의해 만3~5세 영유아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자치단체도 있지만 도와 도 교육청은 오히려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자고 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 교육청은 3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지만 도는 아직도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취소하거나 축소할 행사 불용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사 의지만 있다면 예산 마련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1)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했다고 서비스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처럼 특정 대상이 소외되는 문제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과 보육 체계의 이원화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재난지원금 관련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불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보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 비율 등 어린이집 지원 기준 조정, 농촌지역 어린이집 통합 지원사업 사업 도내 전역 확대를 제안했다.

또 읍·면·동 법인 어린이집 지역 문화복지공간 전환, 유보 통합기반 확충 통한 장애 영·유아 지원, 영유아 교·보육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앞서 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인 교육회복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을 결정했고, 3차 추경을 통해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어디서나 재발급

6세 연령 도래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전신청도 가능
복지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제도 개선 계획”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사회복지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제4차 역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제4차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도 지자체 간 신청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개선하고 부처·기관 간 협의해 관



련 시스템도 같은해 12월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6세 연령 도래자 사전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은 만 6세가 도래한 날 이후에 할 수 있어 매월 말

생일인 일부 신청자의 경우 수급자 결정 처리기한 등으로 급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되도록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 직원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원

내년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재취업 등 촉진

내년부터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령자 고용활성화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이 포함됐다.

내년에 신설되는 이 사업은 고령자가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 직원

수가 기준 시점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직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50~60대를 가리키는 신중년의 지난해 고용률은 66.2%로 의

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고령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에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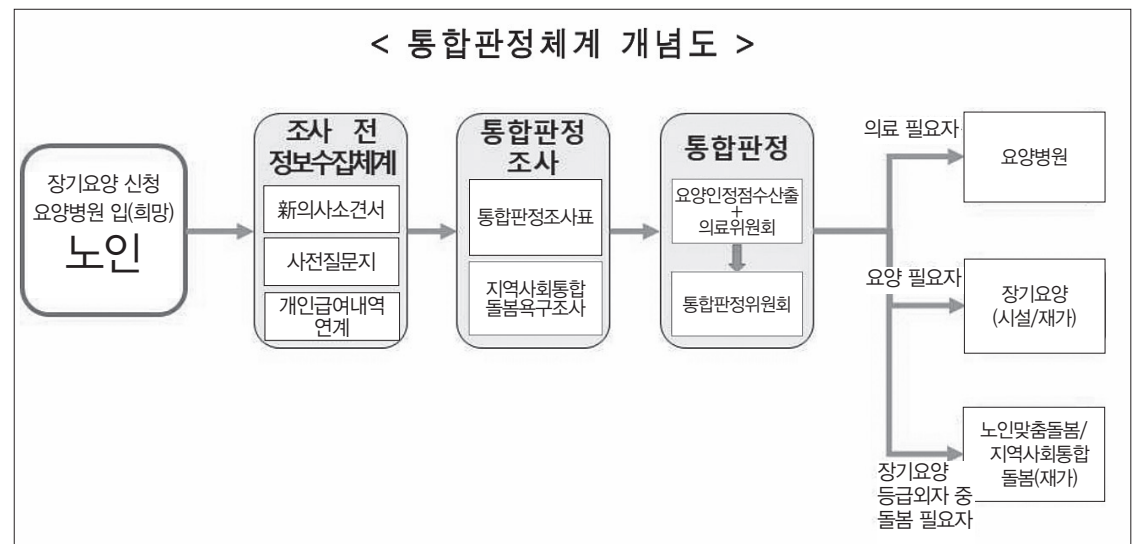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확대하고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 맞춤형 노인 지원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직무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퇴직 인력이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 교육도 지원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직업훈련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관정체계 모의적용



경기 화성·광주 서구 등 총 9개 지역… 총 1000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관정체계(이하 통합관정체계)’ 모의 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의료·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과 노인돌봄 서비스 등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돼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논의에만 그친 상황이

다.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관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개선에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합관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됐다.

특히,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 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과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으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과 통합관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해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12일부터 2개월 간, 총 9개 지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의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또는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관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 2022년 가족센터 12곳 신규 설치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확정… 3년 간 161억 지원

내년에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대전 동구, 충북 보은군 등 10여 곳에 가족센터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곳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가족센터 신규 대상으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충북 보은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으로 내년 3년 간 총 161억원(당당 8억~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산 연제구의 경우 폐가주택 부지를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복합화하는 사업

으로 우수사업계획(경기 용인시, 부산 금정구도 포함)에 선정됐다.

정부는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던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하는 사업이다.

가족센터에는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지역 내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센터는 2015년 2곳 건립

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생활SOC복합화사업(시군구 당 1곳, 15억원 이내 정액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설 수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 신규 지원할 12곳을 합하면 전국 108곳에 시·군·구 가족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4곳(서울 구로구, 경북 경주시, 부산 서구, 서울 양천구)이 완공되어 개관·운영 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가족센터는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교육·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가족센터가 1인 가구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코로나19 극복·청년세대 격차해소·미래도약 3대 방향, 일자리 등 5대 분야 구성 청년정책조정위 “청년 불안감 완화… 청년공론화장 운영·청년과 소통 등 통해 정책 사각지대 보완할 것”

정부는 지난 8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제값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 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청년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대 추진 방향

1. 코로나 위기 극복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수당 지원(17만명)
-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2. 청년세대 내부 격차해소

-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월 최대 20만원, 1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3. 미래도약 지원

-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장병사회복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 민관협력, 청년친화적 ESG 지원 신설(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

■ 5개 분야

① 일자리 분야

- 1)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정부내 TF를 구성하여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을 확대한다.
주요 기업 훈련 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 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 2)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정비
청년들이 선호도가 높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 분야, 그린·BIO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와 협력하여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3) 기술창업 활성화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창업 전→창업 및 사업화→재도전” 등 전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 추진한다.
- 4) 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연 최대 960만 원, 14만 명)을 신설한다.
- 5) 청년친화형 기업 ESG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 국가장학금 규모(조원) : ('21) 4.0 →('22) 4.7(+0.7)

장학금 지원단가(만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1년	I 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2년	I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표1〉

6)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입니다. 재직자내일채움공제(15.5만명), 산업단지 재직자 교통비(월 5만 원, 14만 명), 중소기업 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 원, 연 1.2%),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이 해당된다.

7) 창업 3대 패키지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초기(생애최초 사업화 지원, 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 창업 후(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보증’ 창업펀드추가조성), 재도전(재창업자 전용 ‘다시-Dream 프로그램’) 등이 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인다.

9) 세액공제 확대

고용중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 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을 늘린다.

10)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지역청년 2.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개편(지역혁신, 상생기반대응,지역포용)한다.

11)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창업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3개 추가조성, 영농교육(20개월, 100명 이상), 영농정착지원(3년간 최대 월 100만 원, 200명 이상) 등을 확대한다.

② 주거 분야

1) 월세지원 신설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15.2만 명) 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2)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45→46%)하고, 분리지급 연령 기준을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 임대료 현실화(최대 32.7만 원)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한다.

3) 월세대출 확대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만 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4) 주택 공급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에 청년주택 5.4만 호를 공급하는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3만 호를 공급한다.

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2023년 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 원→3600만 원)

연 최대 3.3%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지속한다.

6) 행복주택 제도 개선

계약금 인하(10→5%), 재계약 요건 완화(금지→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등을 통해 주거안정성을 강화한다.

③ 복지·문화 분야

1) 자산형성

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 원, 104만명) 도입, 희망저금(연소득 ~3600만 원) 출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

코로나 블루에 지친 이들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3개월)를 신설(1.5만 명) 한다.

3)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최대 250만 원 지원,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형성),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6.2만 원, 43만 명), 군 장병 역량개발 지원(자기개발비 년 12만 원, 수강료 지원 비율 50~80%) 확대 등이 있다.

4) 문화누리카드 발급

만 19세 ~ 34세의 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1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한다.

④ 교육 분야

1) 반값등록금 실현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교등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한다. 〈표1〉참고.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2.9만 명) 하고, 취업계층 학생(5.7만 명)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3)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1,050명), 취업연계 장려금(500만 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만→1.5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4)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 강화

SW 중심대학(41→44개), 이노베이션아카데미(500→750명) 운영 확대, 의학·바이오 분야 규제과학대학 지정 확대(5→8개)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100→170명), 첨단바이오 안전관리 인력(50→60명) 양성 확대, 관광분야 미래형관광인재 육성 인원 확대(100→700명),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 조성 등이 있다.

⑤ 참여 권리 분야

1) 청년 참여 확대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는 동시에, 공론화장을 운영(반기)하여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이고, 청년이 공론화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선정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여 도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 법령 체계화

가칭 ‘청년권익증진에 의한 법률’ 제정,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각종 관리자격 등의 최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고,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 연장 등이 있다.

3) 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실시간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센터 기능 개편, 거점 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달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신규 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라면서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 위기 극복

1 취업지원 대폭 강화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설)



연 960만 원
총 14만 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기존 15만 명
확대 17만 명

2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패키지 지원 확대

·역량강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1,050명

·취업지원 취업연계장려금



500만 원

2.9만 명

·일·학습 병행지원 후학습장학금



1.5만 명

3 코로나블루 청년 심리치유 지원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20만 원
x 3개월

* 자부담 2만 원

2021년 6월 16개 기초단체 205명

2022년 1.5만 명

청년세대 격차 해소

1 국가장학금 중산층 지원 확대 반값 등록금 달성

·8구간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



학 자 금
지원구간

기초·차상위 520만 원

5~6구간 368만 원

7구간 120만 원

8구간 67.5만 원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전액지원

지원금액

700만 원

390만 원

350만 원

350만 원

2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한시)

·월세 특별지원 규모 연금 지원 (한시)



20만 원
x 12개월

·월세 특별지원 대상 소득 기준

본인소득 60% 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3 3대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정부매칭 1~3배
3년 후 수령액 720~1,440만 원

·청년희망저금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시중금리 2% 추가(연)
시중금리 4% 추가(연)
저축장려금 36만 원 +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납입액 40% 소득공제
3년간 최대 720만 원

4 2021년말 종료예정 일몰사업 연장 중소기업 재직청년 지원 강화

·자산형성 지원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3천만 원
누적 15.5만 명

소득세 감면 5년간 90%

·생활비 지원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월 5만 원
x 12개월

·주거 지원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 1억 원 (연 1.2%)

미래도약 지원

1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청년창업자금 지급 지원

연 1억 원 (금리 2.0%)

·청년창업펀드 대출 지원

2021년 1천억 원

2022년 +α 추가 조성

·테크스타보증 보증 한도

최대 보증한도 6억 원
보증료 0.3% 고정 (점당 5년 이내 5억 원까지)

2 군복무 청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장병사회복지준비금

정부매칭 250만 원
최대 1천만 원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

2021년 병사 70% 자기개발비 10만 원

2022년 병사 100% 자기개발비 12만 원

원격강좌 참여대학 161개

원격강좌 참여대학 173개

3 민관협력 직무훈련 지원

·청년 고용유연 프로젝트

직무훈련

일 경험

청년공감 채용관행 개선

채용연계

기업자율 프로그램

4 주거 금융지원 통해 내집마련 꿈 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가입기간 2년 연장
소득기준 완화
연 3,000만 원

연 3,600만 원

·초창기 정책모기지 도입

2021년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장 40년 정책모기지 우선 도입

복지광장



차 철 인

SK하이닉스 사회직가채(SV)팀 차장

나에게 감동을 준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서 발달장애를 타고난 주인공 '오웬'은 서너 살 때부터 세상과 단절된 채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를 통해 말문이 트이고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다루고 있다.

영화 말미에 청년으로 성장한 오웬이 자폐 관련 학회에서 '발달장애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게 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발달장애인이 '핸드볼'이라는 운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기회가 없

을 뿐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장애인 핸드볼 지원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마침 SK하이닉스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주)'를 설립하여 장애인 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청주 남자핸드볼팀인 'SK호크스'도 프로보노의 일환으로 장애인 핸드볼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핸드볼을 계속 해보고 싶다는 행복모아 발달장애인 13명으로 핸드볼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벌써 2년 넘은 시간동안 정기적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김미화 감독님과 청주시청 핸드볼 선수 출신인 박미영 코치님이 엄마와 같은 리더십으로 핸드볼 교육을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고 있다. 올 초에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담아 '행복모아 챌린저스'라는 공식 팀 명칭도 정하였고, 이름과 같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

행복모아 핸드볼 선수들은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회사 동료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아마 서로 배려하고 협동해야 하는 단체 구기종목인 핸드볼의 특징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핸드볼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 하는 구성원도 있다고 한다. 선수 부모님들은 운동하고 온 날은 잠도 잘 자

고 부쩍 살도 빠지고 건강해졌다고 한다. 강사로 참여하는 핸드볼 코치님들은 은퇴 후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장애인 선수들 덕분에 또 다른 핸드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행복모아 챌린저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에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모집 공고를 통해 올해 11월 중으로 약 8개의 장애인 핸드볼팀을 선발할 계획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에는 SK하이닉스에서 핸드볼 용품과 유니폼, 훈련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핸드볼 선수출신 경력단절이 된 분들을 연계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 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체전 종목 신설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올림픽인 스페셜올림픽 국제대회에도 국가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 '장애인스포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걸음씩 노력중에 있다. 그 시작으로 '행복모아챌린저스'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핸드볼 훈련지도서를 11월 중에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비록 핸드볼이 국내에서는 올림픽에서란 잠시 주목받는 비인기종목이지만, 유럽에서는 국내 야구와 축구를 능가

하는 인기 스포츠다. 덴마크 발달장애인 핸드볼 클럽인 알볼로키즈(Aalborg Kidz)는 장애인 선수만 400명이고, 31개 팀이 활동중이다.

알볼로 키즈를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 국가대표 출신인 '리키 닐슨' 감독이 한국에 행복모아 챌린저스를 포함해 장애인 핸드볼 팀이 생기는 것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그동안 꿈꿔왔던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기를 치렀던, 우생순 결승전 상대 덴마크의 알볼로키즈와, 대한민국의 행복모아챌린저스가 또 하나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드는 모습을 그려본다.

발달장애로 취업조차 걱정이었던 장애인 부모님은 자녀가 SK하이닉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 입사한 모습을 보며 꿈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이제 행복모아 장애인 구성원이 국가대표가 되어 K-장애인 스포츠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더 큰 꿈과 행복한 도전을 응원해 본다. 다큐 영화속 오웬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것처럼, 핸드볼을 통해 장애를 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장애인 핸드볼 선수들을 보며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다.

장애를 넘어 핸드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전!

정신건강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연 현 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비가 제법 오기는 하지만, 가을 하늘은 정말 예쁘다. 물길 물길 떠 있는 구름도 예쁘고, 정말 하늘 색깔과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늘도 정말 예쁘고, 살랑 살랑 바람도 예쁘다. 하늘이 예쁘다 보니 해질녘에 노을도 선명하고 가슴에서 무언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 느낌도 예쁘다. 이렇게 예쁜 계절에 우리에게 선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가을 저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명절 등 특별한 날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날에 이벤트를 해야 하는 업무 피로감도 있지만, 시설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평소 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시설에 찾아오실 때에는 특별한 날 만큼이나 선물도 주십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절인 추석을 그냥 저냥 보낸 것이 벌써 두해나 되었습니다.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정치인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쌀이며, 집기들을 기부하고 사진을 찍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욕을 하지요. "가식적인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저렇게 과시용으로 기부를 하고 광고에 써먹고" 하지만,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 중 얼마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기부를 할까요?

사람들이 '위선', 혹은 '가식'이라고 하나 저는 이런 '위선'이나 '가식'도 있으면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선행에 대해서도 편견 혹은 자신만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떠한 다른 의도도 없고, 때로는 힘든 내 형편을 무릅쓰면서까지 타인을 위할 때 그것을 선(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시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거나, 금액이 소액대비 대단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선행의 '순수함'을 따져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부나 봉사는 선행으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아냥과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 선행을 보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이 잣대로 주위의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기부해봐야 중간에서 다 가로채가거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여 기부나 봉사를 전혀 하지 않기도 합니다.

가식이란 아니든, 우리에게는 그 도움이 소중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바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았으면 하고, 왼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선행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었을 때 해주는 격려나 인사가 "후훗"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한 몫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칭찬을 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관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과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관심'에 감사해하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추석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물품이나 봉사활동이 대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등의 나눔 행사도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의 산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지냅니다.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우울, 불안, 걱정 등 부정적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부정적 감정으로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다 보면, 우리의 뇌 역시 그 활동이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이지요. 무기력해지다보면, 신체 활동이 적절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감정이 없으면, 우리 뇌는 무엇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주 사소한 일에도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화가 납니다. 피곤하니까 신체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정신 활동도 멈추게 되지요. 무엇이 먼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요. 나의 몸과 마음이 나를 만들고 있음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떠한 다른 의도도 없고, 때로는 힘든 내 형편을 무릅쓰면서까지 타인을 위할 때 그것을 선(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시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거나, 금액이 소액대비 대단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선행의 '순수함'을 따져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부나 봉사는 선행으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아냥과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 선행을 보는

것기 좋은 계절입니다. 먼저 움직이세요. 움직이다 보면 주변이 보일 것입니다. 주변이 보이면, 나 말고 타인에게도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나 하나 추스르기도 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과 선을 구분하지 마세요. 주변에 작은 선함을 뿌리다 보면 나 뿐 아니라 세상을 추스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유 수 진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작년 2020년 1월이었다. 당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감염자가 한둘씩 나오던 그 시점, 나는 '요즘 같은 발달된 사회에서 바이러스야 금방 잡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세 달이 채 되지 않아 감염자는 금방 수천명대를 웃돌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역사서의 한 페이지에 기재될 코로나19 압축기를 맞게 되었다. 압축기가 되자 처음에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서비스직부터 시작하여 점점 감염자 속출과 함께 직업 단절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복지계도 그 여파를 그대로 맞게 되었다. 직접적으로는 감염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진행중인 사업도 취소하게 되었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사회,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다가 그마저도 휴관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사람이 밀집되는 시설은 더욱 조심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시설이나 기관을 유일한 낙으로 삼던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복지관을 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갈증이 더해졌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새는 센터로 익숙한 전화가 자주 온다. 파르르르릉~ 전화가 울리면 어김없이 반호 확인 후 전화를 받는다. "네, 000 어머니. 아까도 통화하셨죠?"란 질문 한마디에 때면 똑같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해? 나 안보고 싶어?"라는 똑같은 답이 이어진다. 그러면 나는 "보고 싶어도 지금은 가지 못해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아파서 아야 하는 상황이라 나중에 어머니 뵈러 갈게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지금 못한다고 하면 실망할 법도 한데 우리 어머니는 더 상기된 목소리로 "나중에? 언제? 언제 와?"라고 물어 보신다. 그럼 또 이어지는 대답 "어머니, 지금은 안되구요. 찾아뵈러 가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저희 항상 어머니께 연락드리고 찾아갔지요?" 이렇듯 직원 선생님들이 보고싶다, 언제 볼 수 있는지, 담당 선생님 성함이 뭐었는지 때면 같은 대답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러 가지 못한다는 안내를 수시로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한숨이 어김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사다. 우리 센터, 혹

은 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에 웃으며 참여해주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설بر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우리 센터는 대면 사업 외에도 동료상담 멘토링 사업과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께 담당 선생님들께서 수시로 전화를 통해 안부를 여쭙고 있으며 최근 근황과 가정의 실시간 근황을 알 수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된다. 본 센터에는 심한 발달장애인 가족이 많은 만큼 위기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몰라 실시간 근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사업의 방향성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멘토링 사업은 개인적으로 본 센터 뿐만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동료상담멘토링 사업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비장애 부모님께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들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자원 등을 파악해서 지원 및 연계해 드리고 있다.

멘토링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비장애 어머니들을 멘토로, 또 장애인 부모님들을 멘티로 매칭하여 일상 생활에서 가정이나 사회에 있어 소통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

식을 습득할 수 있고 멘토-멘티 서로에게 필요한 교육과 나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 하시다가도 금방 라포가 형성되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신다. 일반적인 전화 상담만이 아닌 선생님들의 대면 방문도 주기적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다행히 멘티 분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전화상담 이다보니 공감에 제일 중요한 만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은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로 멘티가 되는 장애인 가족과의 매칭으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처음에는 대상 멘토분들을 구하기 쉽지 않아 난해하기도 했었다. 흔쾌히 다른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비장애 부모님들이 나서주셔서 고마울 따름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서투른 장애인들이 당장 내 옆에 있는 분도 마음속에는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소중한 불씨를 품고 계시지도 모른다.

우리는 힘든 상황을 직면하였지만 그 힘들도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 모두 마음속에 타인을 위하는 따스한 불꽃과 어떤 시련이 와도 손에 손을 잡고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타고난 민족성으로 하여금 하루 빨리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있으며 손을 맞잡고 "그런 날이 있었지" 회상하는 날이 오기를 오늘도 웃으며 기대해본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신인정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colt0914@gmail.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지난 달에 이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집 비워둬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A. 손해배상의 요건이 실거주는 아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던 기간 내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Q. 집주인이 집을 매각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A. 집을 팔면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Q.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집주인 자신이 거주하는 것만 해당하나.

II.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A.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비속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다.

Q.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매각하면 새 주인이 잔여기간을 채워야 하는가.

A. 매수인이 잔여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매수인이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이다.

Q.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의사 표시를 통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과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처음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A. 다음 액수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먼저 3개월치 월세다. 전세는 금리를 기준으로 월세로 환산한다. 다음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이다.

Q. 전·월세 상한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 주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다. 이들이 조례를 통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자치구뿐 아니라 동별로 정할 수도 있다.”

인사동정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 회장 최경옥 / 10월 12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솔지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누리재능기부복지회 문화·예술 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누리재능기부복지회(단장 김금자)는 지난 9월 24일

6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

다. 김금자 단장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행사가 어려운 시점에 공연 기회를 마련해준 센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봉사단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아낌없이 나누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함께하는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2021. 10. 21. (목) ~ 11. 09. (화) 18시까지

공모주제 함께하는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가정이 해야 할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포스터 이미지 제작

*** 주제 예시**

- 혼자 하는 육아에서 함께하는 육아로 인식 바꾸기
- 기업·사회가 실천하는 함께하는 육아 문화 만들기

*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보건복지부 함께육아 캠페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진 포스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모자격 전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 참가 가능(최대 3인)

응모기간 2021.10.21. (목) ~ 11.09. (화) 18시까지

당선작 발표 2021.11.26. (금) 공모전 페이지 및 함께육아 페이스북
* 수상작은 함께육아 캠페인 공식 포스터 및 지면 광고 등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

시상내용 * 제세공과금 3.3% 공제 후 지급

구분	수상 혜택	인원
대상	300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상	1명
최우수상	150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상	2명
우수상	100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상	3명
입상	20만 원	20명

* 결과에 따라 기존 미달로,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응모 작품
2. 참가 신청서
3. 저작권 관련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규격

제출파일명 | 함께육아포스터 - 제정자(팀명) - 작품명
제 작 유 형 |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포토샵
제 출 규 격 | 4인치 (300mm x 540 mm) 12(12)당 1점 이내 / 해상도 300dpi 이상의 JPG, PNG 파일(세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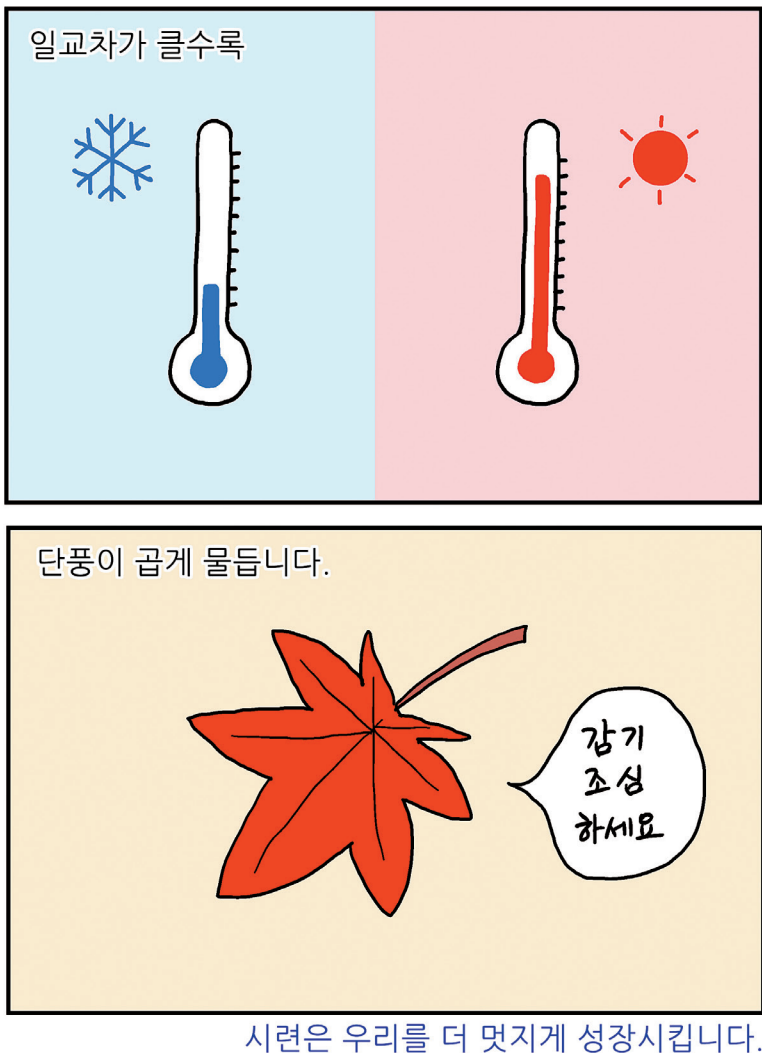
접수방법 공모전 참여 신청서를 공모전 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 및 작품을 관리자 메일 계정으로 제출
✉ hamkkecontest@gmail.com
문의처 | 02-2022-8272

공모전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만/평

시련

이창신 www.bokmani.com



시련은 우리를 더 맛있게 성장시킵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

▶ 초중생 영어 학습지도

관리센터 : 에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254-9391

▶ 조리업무 봉사

관리센터 :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231-2676

▶ 건강검진 진진표작성 도우미 및 안내

관리센터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299-5734

▶ 어르신 한글지도

관리센터 :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266-4761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 즐거운생활자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216-1365

▶ 마을연구활동 봉사

관리센터 :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285-0102

▶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835-4288

▶ 녹음도서 모니터링

관리센터 :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237-5544

▶ 유아성폭력예방인형공 공연 봉사

관리센터 :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216-1391

▶ 공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 10.1~11.30
전화번호 : 043-835-428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